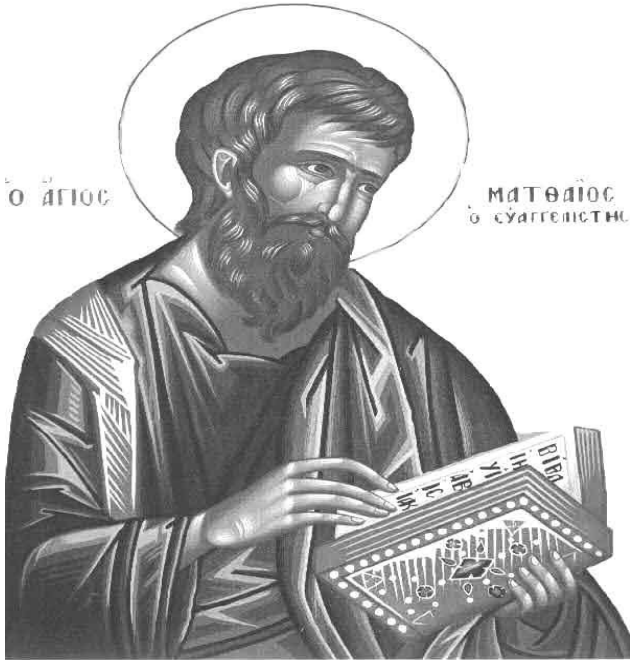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마태오 복음사도

루가 제 8주일

사모나 순교자

제 6조, 조과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6조 부활찬양송 / 82, A 216

•주일 입당송 / 14, A 42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성당 찬양송

•성모 입당 축일 시기송 / 204, B 237

•사도경 : 에페소 2:4~10 / 봉독서 610

•복음경 : 루가 10:25~37 / 128, B 74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마태오 복음사도

우리 교회는 11월 16일 거룩한 마태오 복음사도를 축일로 기념합니다. 성인께서는 성서의 첫 번째 복음서의 저자로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오 복음사도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오라.'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셨다."(마태오9:9) 세리였던 사람이 사도로, 복음사가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교화시

키는 힘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힘은 우리를 교회와 연결시키는 유익한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 일하던 사람을 어떻게 하느님께서 찾아내시고 선택하시어 복음사도로 만드셨는지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로마서 11:33)라고 사도 바울로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느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일을 겪게 되고 그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Mentor를 찾게 된다. 세상에는 저명한 Mentor들이 많이 있고 그 유명세에 따라 그 가치는 돈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순수하게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다. 어떤 세계적인 펀드 투자가와 식사 한번 하며 대화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무려 천만원이라 하고, 어떤 나라의 총리였던 사람이 한국에 잠시 들렀을 때 강연을 했는데 강의비가 무려 일억이었다고 한다. 이같이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들의 조언을 듣고자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그만큼 도움이 되고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조언자들을 주변에서 찾게 된다. 때로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술자리도 만들고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 개인적인 일들을 얘기하며 좋은 얘기를 듣고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저명한 Mentor라도 완벽하진 않다. 실수가 있게 되고 실수가 잦을수록 그 유명세는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과거의 조언자로 남게 된다. 설사 그 유명세가 오래가더라도 한 시대에 머무를 뿐이지 계속되지는 못한다. 언젠가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어 그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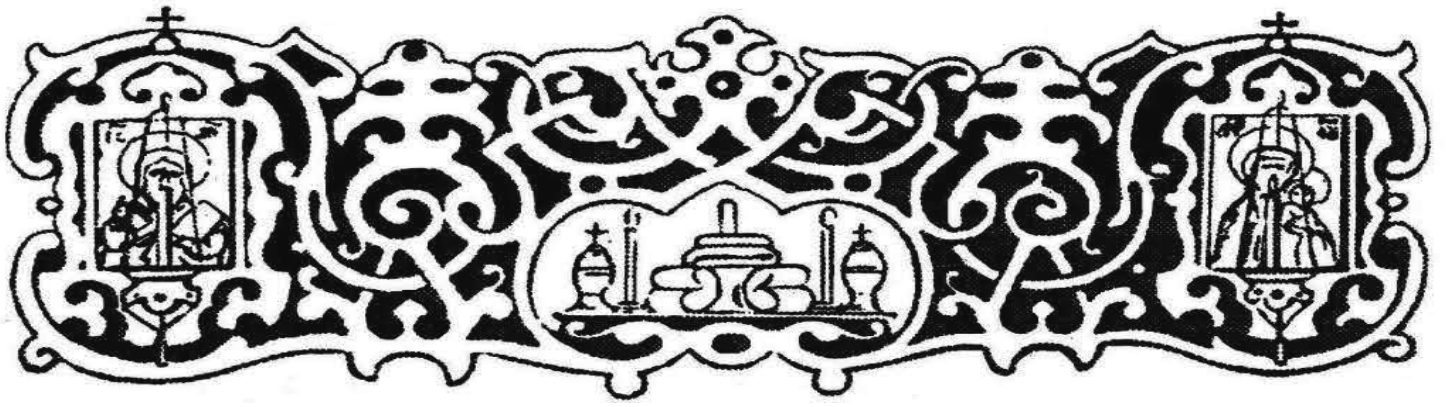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Mentor를 찾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원한 Mentor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

고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 주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의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의 말씀은 한 시대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하고 완벽하므로 그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죄를 짓지 않고 사셨다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보이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분은 완벽한 Mentor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의 말씀 또한 영원하시다. 따라서 그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실천하고 나아가면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영원한 Mentor이신 주님께서서는 어떤 율법교사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네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셨다. 먼저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것을 실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

알렉산드로스 한의중 신부



기도 : 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3)

아토스의 꽃들(저자: 모세 수사)에서 발췌

(기도의 본질)



결국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관심과 노력을 들여 힘들게 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거룩한 교부들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 말합니다:

“기도는 삶의 폭풍우 속에서 안전한 피난처이고, 악천후에 휩싸인 이에게 닦과 같으며, 가난한 이의 보물이고, 부자의 안전을 보장해주며, 병든 이를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해줍니다. 기도는 악한 것을 몰아내며, 선한 것을 보존해줍니다.”

“기도는 영혼의 ‘파토스’(악으로 기우는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걱정)를 잠재우고, 분노를 누그러뜨리며, 부러워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고, 악한 욕망을 소멸시키며, 세속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시들게 하고, 영혼에 평화와 평정심을 가져온다.”

이처럼 기도가 제공해주는 것을 볼 때 기도의 본질은 분명해집니다. 성 요한 클리막스(6-7세기)는 기도는 우리와 하느님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주는 유익함을 모든 이에게 가르쳐주려고 했던 시나이의 그레고리오스 성인(13-14세기)은 주제의 본질을 더 깊이 꿰뚫으며 말합니다:

“기도는 초보자에게 즐거운 불꽃과 같으며, 상급자에게는 활성화되었을 때 향내를 풍기는 빛과 같습니다. 기도가 우리 마음에 알려줍니다: 기도는 구원의 희망이고, 정결함의 표지, 거룩함의 상징, 하느님을 아는 지식, 성령이 함께 하는 증거, 예수님의 기쁨, 영혼의 즐거움, 하느님의 자비, 화해의 신호, 그리스도의 인장(印章), 이해할 수 있는 태양의 광선, 그리스도교의 확증, 천사와 같은 삶의 증거라는 것을.”

기도를 방해하는 심각한 장애물은 폭식과 수다, 지나친 수면과 사치스러운 생활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느님에 대해 망각하게 하고 몸을 굵뜨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이 깨어있어서 위로 날아오르게 하는 것 또한 어렵게 합니다.

아타나시아

주보소식

대교구

⇒ 성탄 대림절 시작

오늘 11월 15일(일)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탄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아래와 같은 금식 기간이므로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 세상 구원을 위해 오시는 구세주, 우리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축일표에 따라 :

- 11월 15일~12월 17일 : 생선은 허용되며 육류는 금합니다.(단, 수, 금요일에는 육류는 물론 생선류도 모두 금합니다.)

- 12월 18일~12월 24일 : 엄격한 금식으로 육류와 생선류 모두 금합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

⇒ 주일학교 특별 프로그램

올해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수련회를 대신해서 지난 11월 7~8일까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7일 토요일 오전에 여느 수련회와 마찬가지로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아침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과 함께 첫 번째 주제 “주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실내 놀이를 통해 친교를 다지고, 점심 식사 후에는 야외 활동으로 체련공원에서 암벽등반 체험을 하고 다 함께 축구 등 공놀이를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간식 시간을 가진 후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주일 성찬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직접 학생들이 성당의 등잔을 준비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대만과를 드렸고, 대주교님께서 미카엘과 가브리엘 대천사와 천상의 모든 천사들 축일을 맞이하여 천사들의 임무에 대한 설교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만과 후에 저녁식사를 하고 모두 귀가하였습니다. 8일 주일에는 주일 조과와 성찬예배에 참여하였고, 예배 후 9일 축일을 맞이하는 성 넥타리오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 “다락방 방문”을 함께 읽어보고 모본이 되는 성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에 간직하기로 하였습니다. 점심식사를 끝으로 이틀간의 특별 프로그램을 하느님의 도움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석한 학생들과 많은 도움을 주신 여성회,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간예식



11월 16일(월) 마태오 복음사도

11월 21일(토) 성모입당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